



PS판 사이버 매장 운영으로 인쇄업계 발전 기여할 터



“인터넷상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PS판업계에서 다년간 근무하던 손강복씨가 온라인상에서 PS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를 창업, 본격 영업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호는 아라리닷컴(www.arari.biz).

손사장은 PS판 업체가 난립돼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생산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같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윈윈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온라인 매장을 개설하게 됐다고 말한다.

손사장은 이미 국내 생산업체인 금성정공, 세일PS, 제일PS, (주)제일과 중국화광PS 국내공급사와 협약을 맺었다. 또 세진과는 협의 중이다. 이를 위해 일산지역에 창고형 매장 두곳을 마련해 놓았다.

“공급 및 생산회사들도 영업과 물류비용이 감소되어 이익이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고 소비자는 경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하는 손사장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인쇄업계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이 사

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라리닷컴은 자신들의 사이버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꽃배달서비스(시장가격보다 15%정도 저렴), 투자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해 최저세율을 적용한 어음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는만큼 고객에게 최저 비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는 수도권에만 사이버매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점차 지방으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